

## 중랑 용마폭포공원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시민스토리 공모' 당선작)

이원복

용마폭포공원이 우리의 문화본부가 돼주길

- 태극 13단과 용마폭포공원의 그 숨겨진 이야기

우리 태극 13단에게도 본부가 생겼다. 그곳은 용마산 채석장 입구에 움푹 파인 작은 동굴 같은 곳이었다. 아마도 용마산 채석장에서 돌을 파내다 어른들 말씀대로 쓸만한 돌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버려둔 곳인 모양이다. 지금 생각해도 우리들의 본부는 정말 멋진 곳이었다. 우선 본부가 생각보다 안으로 깊이 파여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었다. 채석장 입구에 있었지만 어른들이 본부에 일부러 찾아오기 전에는 어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쉽게 알 수가 없었다. 특히 엄마들은 우리가 채석장 근처에 얼씬거리는 걸 너무 싫어하셨기 때문에 본부의 첫째 조건은 보안이었는데 의외로 그곳은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우리 13명은 있는 그 본부에서 태극 13단을 결성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친구들을 배신하지 않으며, 정의로운 어린이가 될 것을 굳게 맹세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살던 중랑구 면목동에는 배밭이 가득했고, 여기저기 공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아이들처럼 열심히 뛰어놀기보다는 뭔가 뜻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텔레비전에 나오던 어린이 연속극의 주인공 애들처럼 우리도 사회의 불의와 맞서 싸우고 어른들이 모르는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면목동과 중랑구 그리고 나아가서 서울시와 우리나라를 좀 더 깨끗하고 멋진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와 손민구, 최경선 등 학교에서 공부도 제법하고, 운동도 잘하는 13명의 친구들이 태극 13단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실, 태극 13단의 결성이 생각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했다. 다른 아이들도 많이 하늘단이나 통일단 같은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 집 지하실이나 빈집 같은 곳을 본부로 정하고 열심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까닭이다. 하지만 하늘단이나 통일단 애들은 집에서 시끄럽게 군다거나 빈집에서 깜깜하다고 촛불을 켜다가 어른들에게 걸려서 하루 아침에 본부를 빼앗기고 동네 공원에서 만나다가 모임까지 시들해지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 태극 13단은 어른들에게 절대 걸리지 않고 본부를 중심으로 용마산을 날다람쥐처럼 오르내리며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용마산을 오르 내리며 수상한 사람들도 신고하고, 그때 한창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던 자연보호운동도 하자는 생각이었지만 학교가 알아주는 개구쟁이 13명이 그런 착한 일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낼리 만무했다. 우리는 정말 거짓말처럼 채석장 위 용마산 그 높고 험한 바윗길을 날다람쥐처럼 날아다녔다.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참을 바위 위를 달려올라 가다가 산중턱의 작은 바윗굴 같은 곳에서 혼자 경을 읽고, 참선을 하는 스님을 만난 일도 있었다. 그 스님도 오랜만에 보는 어린 사람이 반가우셨는지 어딘가 숨겨놓았던 사탕도 꺼내주시고 물도 나눠주셨던 기억이 난다. 다른 날에는 용마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음식을 잔뜩 펼쳐놓고 맛있게 드시던 아저씨들과 만난 일이 있었다. 그 아저씨들은 마침 남은 음식을 가져 내려가는 게 귀찮았는데 우리를 잘 만났다면 그때는 먹기 힘들었던 고기와 음료수들을 나눠주셨다. 하지만 그 아저씨들이 생각 없이 물어본 그 다음 말이 문제가 됐다.

“태극 13단? 오! 멋있는데... 그럼 너희들 중 누가 대장이야?”

아저씨들의 생각지 않은 질문은 태극 13단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터뜨려 놓은 격이었다. 그때 나와 손민구가 보이지 않게 대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태극 13단은 두 명의 대장이 이끄는 쌍두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손민구와 내 말이 서로 달라서 같은 일을 두 번 해야 한다는 불만을 쏟아내곤 했다.

“어이~ 태극 13단! 어디든지 대장은 한 명이라야 단체가 잘 돌아가는 거야. 이거 먹고 내려가서 얼른 대장을 정해. 대장 정해서 다시 오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줄게.”

그런데 문제는 손민구와 내가 성적, 달리기, 키까지 닮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였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누가 단독으로 대장 노릇을 할 것인지 여러 번 이야기했고, 태극 13단 아이들도 나와 손민구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태극 13단의 본부 옆으로 작은 절벽 같은 곳이 있었다. 분명 밑에서 보기에는 그리 높지 않았고 울퉁불퉁하게 돌이 튀어 나와서 절벽 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손민구에게 자신만만하게 내기를 걸었다. 저 절벽을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대장이 되는 걸로 하자. 손민구도 처음에는 조금 놀라는 눈치였지만 태극 13단 아이들도 보고 있었고, 자기 생각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

는지 쉽게 오케이를 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날짜를 정해서 절벽 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위로 올라갔는데 중간쯤에서 밑에를 보니 벌써 꽤 높은 곳까지 올라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팔을 뻗어도 만만하게 잡을 수 있는 튀어 나온 돌이 없다는 것이다. 민구의 얼굴도 이미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다. 민구는 결국 열심히 아래로 내려갈 길을 찾는 듯 보였지만 역시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팔은 점점 떨려 오고 입은 마르기 시작했다. 밑에서 우리의 시합을 보던 태극 13단 아이들도 몹시 놀란 모양이다. 언뜻 보니 경선이랑 몇 명을 빼고는 이미 모두 도망을 친 뒤였다. 태극 13단의 빛나던 맹세와 용마산을 누비던 태극 정신은 이미 모두 사라진 뒤였다. 결국 밑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경선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채석장으로 달려가 일하던 아저씨들을 모셔왔고 우리는 겨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다.

한동안 집에서 지독한 감기를 앓고 난 뒤 우리는 엄마의 감시 속에 본부도 태극 13단도 모두 잊어야 했다. 손민구와도 학교에서 마주치면 손을 들어 잠깐 아는 체를 할뿐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우리는 곧 서로 다른 중학교에 진학했고 엄마의 걱정 소리와 함께 공부에 신경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용마산과 채석장과 돌산까지 기억에서 멀찍이 잊어버린 채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채석장에 용마폭포공원이 생겼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다. 채석장이 문을 닫은 후 나는 당연히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일 때문에 찾은 부산의 한 채석장에서 바위산을 깎아서 골재로 판매한 뒤 빈터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 찾아가본 용마폭포공원은 세 개의 폭포와 시민광장, 잔디광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철마다 재미있는 축제가 벌어지는 멋진 곳으로 변해 있었다.

일이 바빠서 자주 용마폭포공원을 찾지 못해도 가끔씩 이곳에서 운동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이곳이 중랑구 사람들의 본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쉽게 이야기를 나누고, 물과 음식을 쉽게 나눠 먹고, 놀고 싶어 하는 이곳이야 말로 중랑구 사람들의 소중하고 귀한 본부라는 생각이 드는 까닭이다.

“용마산만 바라봐도 든든하지. 폭포도 시원하고, 여기 오는 사람들도 다 좋아. 맞아. 여기가 우리 본부야. 다 여기서 모이니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앞으로 용마폭포공원이 중랑구 사람들의 본부를 넘어 서울 사람들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본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지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퍼포먼스가 개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어린 시절 자주 소풍을 갔던 온달골의 전설을 모아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재현행사를 이곳에서 하면 어떨까? 경기도의 다른 시에서 고구려 이미지를 선점했다고 위축되지 말고 온달골을 이미지를 만들어 용마폭포공원에서 재현행사가 벌어진다면 좋은 호응이 있으리란 생각이다.

또한 용마폭포공원의 채석장 이미지를 살려 중랑구에서 살고 있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엄마, 아버지들의 모습을 부조로 형상화해 전시하면 어떨까? 부조나 동상은 늘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형상을 만든다면 문화본부의 이미지가 더 커질 것이다.

어릴 적 나와 함께 절벽을 기어오르던 손민구도 아마 용마폭포공원을 찾아 운동도 하고 어릴 적 추억도 이야기할텐데... 서로 다시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미리 생각해 봐야겠다.